

어제의 과학에서 이 시대를 반추하다

휘어진 시대 1~3권

남영 지음



“나는 나의 죽음을 보았다.” X선을 이용해 세계 최초로 촬영된 자신의 손 사진을 본 윈트겐의 부인 안나의 말이다. 1895년 11월, 윈트겐은 크록스관(개량된 음극선관) 실험 중에 우연히 정체를 알 수 없는 복사선을 발견하고 ‘X선’으로 이름 붙였다. 이후 X선은 방사선과 전자 발견 등 새로운 현대 물리학의 출발을 촉발시켰다.

그리고 50년이 흐른 1945년 7월, 미국 뉴멕시코 사막지대 ‘트리니티’에서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 실험이 이어졌다. 현장에서 참관하던 오펜하이머는 ‘천개의 태양’보다 밝은 폭발 후 거대한 버섯구름이 피어오를 때 힌두 경전의 한 구절을 떠올렸다. “이제 나는 죽음이요,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다.”

남영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가 펴낸 ‘휘어진 시대’는 원자시대의 시작부터 원자폭탄의 출현까지를 3권에 담았다. ‘혁신과 잡종의 과학사’ 시리즈 첫 번째 책인 ‘태양을 멈춘 사람들’ (2017년)을 출간한 후 6년 만이다.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21세기 첨단 과학 문명을 누리고 있지만 정작 19세기 말부터 현재로 이어지는 과학의 역사를 제대로 모른다. 동학농민혁명과 갑신정변, 국권침탈로 이어지던 그 시기, 유럽에서는 새로



미국이 태평양 마이크로네시아 비키니 환초에서 실시한 핵무기 실험(1946년 7월). <위키미디어 커먼즈 제공>

운 현대 물리학이 태동하고 있었다. 투과성이 강한 복사선(방사능)에서 비롯돼 전자 발견, 원자구조·양자역학 연구로 나아갔다. 1905년 스위스 특허청 직원이었던 26살 아인슈타인은 ‘E=mc²’이라는 유명한 공식을 담은 짧은 논문 등 6편을 발표한다. 기존 시간과 공간, 에너지와 질량에 대한 개념이 바뀐 ‘기적의 해’였다. 나중 ‘원자폭탄의 아버지’로 불리는 레오 실라드는 1933년 핵분열 과정에서 원자무기를 떠올렸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나치 독일과 미국에서 경쟁적인 원자폭탄 개발로 실현됐다.

저자는 20세기 초반 현대 물리학의 대격변을 설명할 상징어로 아인슈타인 상대성이론의 ‘휘어진’을 꼽고 이 때를 ‘휘어진 시대’로 표현한다. ‘과학과 시대와 인간 군상들의 고귀함과 저열함을 모두 함축한 중의적 표현’이라고 한다.

1권(1896-1919년)은 ‘원자시대의 시작과 상대성이

론의 탄생’, 2권(1920-1939년)은 ‘양자역학의 성립과 과학낙원의 해체’, 3권(1939-1945년)은 ‘원자폭탄의 출현과 거대과학의 시대’를 다룬다. 저자는 피에르·마리 퀴리 부부를 비롯해 막스 플랑크, 알버트 아인슈타인, 폰 노이만 등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현대 물리학의 전개과정을 6개의 시대로 구분해 들려준다. 상대성이론, 양자역학 등 현대 물리학의 개념과 용어들이 어렵지만 현재의 과학문명이라는 거대한 나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현대 물리학, 과학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원자폭탄의 발명으로 아누스의 모습을 띤 과학의 역사를 알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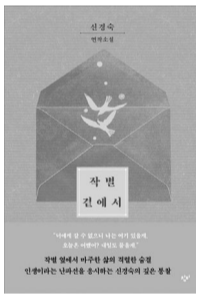
“어제까지의 과학을 확인하고 나면, 우리는 이 시대를 반추할 힘을 얻고, 오늘 이후 과학의 열개를 조심스럽게 설계해볼 수 있을 것이다.” <공리·각 권 2만8000원>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작별 옆에서 있는 사람들을 위한 위로의 편지 세 통

작별 곁에서

신경숙 지음



누구에게나 이별의 순간은 찾아오기 마련이다. 가족과의 이별이기도, 친구와의 이별이기도, 내가 나고 자란 고국과의 이별일 수도 있다.

때 순간 헤어지며 살아가는 우리 곁에 오래도록 자리 하며 위로를 전할 한 권의 책이 나왔다. 국내·외 독자들을 때로시킨 소설가 신경숙이 데뷔 38년 만에 낸 첫 번째 연작소설 ‘작별 곁에서’다.

“너에게 갈 수 없으니 나는 여기 있을 게. 오늘은 어땠어? 내일도 물어볼게.” 예기치 않은 일들로 삶의 방향이 바뀌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서간체 형식으로 풀어낸 책은 총 세편의 중편소설을 엮었다.

현대사가 활취고 지나간 한 가족의 아프고도 시린 생을 통해 디아스포라의 상실감과 모국어를 향한 그리움을 담담하고도 총총하게 보여주는 ‘봉인된 시간’, 독일에서 암투병 중인 친구의 작별인사가 담긴 이메일을 받고 무작정 친구를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나는 나의 간절한 작별 의식을 써내려간 ‘배에 실린 것을 감은 알지 못한다’, 소중한 이들을 떠나보내고 몇 년간 은둔하다가 ‘봉인된 시간’의 화자에게 답장을 쓰기 위해 제주의 작별실을 다시 찾은 나의 이야기를 담은 ‘작별 곁에서’까지...

절묘하게 연쇄되는 세 통의 편지는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작별과 사랑, 생의 의미를 사려깊은 문장으로 사유하며 폭넓은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표제작 ‘작별 곁에서’는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내리는 뼈아픈 작별을 겪은 ‘나’가 ‘봉인된 시간’의 화자에게 8년만에 보내는 답신으로 쓰였다. 소중한 이들을 떠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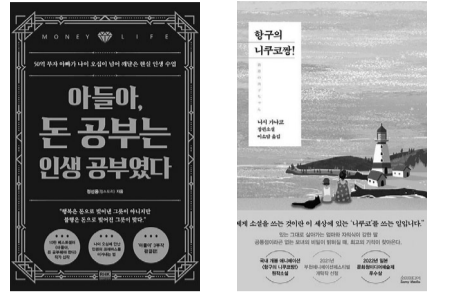
보내고 오랜 시간 은둔했던 나는 작업실로 사용했던 제주의 숙소를 8년만에 찾는다. 집주인 유정과 함께 제주의 이곳저곳을 돌아보다 4:3의 아픈 흔적을 마주한다. 그리고 “내 숨이 내 것만 것만 아니며 “다 살지 못한 사람들 땀까지 내가 함께 살고 있는 것”이라는 유정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삶을 향한 발을 내딛는다. 우리는 그렇게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진실은 때 순간 헤어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들을 위로하고 있다.

“어느 순간 예기치 않은 일들로 삶의 방향이 틀어져 버린 사람들의 작별이 희미하게 서로 연결된 채 여기 있다. 이 세통의 긴 편지가 어디에 도착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당신이 수신하기를 바란다. 그들의 간절한 발신음들이 당신을 만나 서로 손이 닿기를... 내가 어떤 글을 쓰든 그 글들이 종내는 작별 옆에서 있는 사람들의 어깨를 보듬어주는 온기를 품고 있기를 바라본다.” <창비·1만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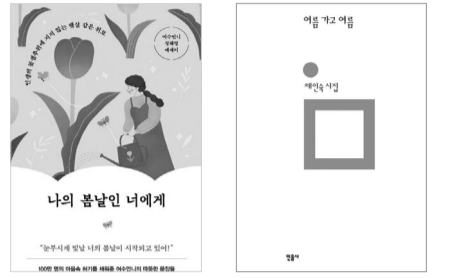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아들아, 돈 공부는 인생 공부였다= 10만 베스트셀러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를 쓴 정선용 작가의 ‘아들아’ 시리즈 3부작 완결판. 50억 부자 아빠가 나이 오십이 넘어 깨달은 현실 인생 수업이다. 기나긴 인생에서 잘살기 위한 마음가짐과 인생을 좌우하는 요소들, 돈 공부를 할 때 꼭 알아야 할 돈의 역할과 속성 등을 알려 주고 마지막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는 당부도 담겨 있다. <RHK·2만원>



▲항구의 니쿠코짱! = 일본 대표 여성 작가 니시 가나코의 ‘항구의 니쿠코짱’은 결결하고 활달한 어머니 니쿠코와 그녀를 부끄러워하는 사춘기 초등학생 기쿠코 사이의 비밀이 밝혀지며 일어나는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다. 엉망진창이지만 그럼에도 살아가는 니쿠코의 모습을 통해 용기와 감동을 전한다. 2021년 애니메이션 영화로 제작됐으며 지난 4월 국내에 개봉됐다. <소미미디어·1만4800원>



스스로를 사랑하며 한 발짝만 더 내딛어 볼 것을 권한다. <놀·1만6800원>

▲여름 가고 여름= 2015년 오장환신인 문학상에 5편의 시가 당선되며 시작 활동을 시작한 채인숙의 첫 시집. 채인숙 시의 주된 공간은 그가 거주하는 인도네시아다. 1999년 인도네시아로 이주한 후 30여 년간 이국의 땅에서 고집된 그의 마음을 달래 준 것은 시에 대한 추억과 시를 향한 열망이었다. 시집은 여름 가고 여름 오는 열대의 나라에서 다음 생을 향해 보내는 그리움의 편지다. <민음사·1만2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똥 먹는 나라의 연우= 아홉살 여자가 이 연우가 우연히 공원에서 본 도끼를 뒤쫓다 똥 먹는 나라로 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똥 파티에 초대된 연우는 더럽다고만 생각했던 똥이 동물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가면서 함께 공감해 나간다. 사람이 바라보는 똥의 관점과 동물 이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뿐만 아니라 똥에 대한 다양한 상식을 알 수 있다. <아르볼·1만4500원>

음성 뒤로 랭크가 움직이고 헬기가 날아다니며 시민들은 집안 붓에 맞고 끌려간다. 어린이의 시선에서 본 1980년 5월 광주, 그날의 이야기가 가슴 아프게 펼쳐진다. <다림·1만4000원>

▲그 오월의 달기= 1980년대 노지 달기는 주로 5월에 수확한다.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인데, 그해 5월엔 달기밭에 달기가 넘쳐 났고 수확도 안 된 채 죽어 갔다. 평화로운 달기밭의 풍경과 어린이의 순진한

▲미안해 또 미안해=진심으로 사과하는 방법이 담긴 고맙고 사랑스러운 그림책. 누군가와 화해하고 싶을 때, 말없이 건네는 것으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림책이다. 그림 작가 파울로 프로이테리가 2021년 ‘상사 속 친구’, 2022년 ‘조용한 빵 가게’에 이어 올해도 ‘미안해 또 미안해’를 펴냈다. 그림체만 봐도 마음이 치유되는 따뜻함이 깃들어 있다. <이야기공간·1만7800원>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과 함께 있어 외롭지 않습니다

자연과 만나는 새로운 삶의 시작,

수목장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수목장의 장점

- 반영구적 사용가능
- 관리의 간소화
- 낮은 관리비
- 자연과의 동화
- 후손들의 부담 감소

※ 윤달 이장 상담 가능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메모리얼 가든

24시간 연중무휴
☎ 062-464-3466